



코로나19 사태 이후 ...

# '#얼론' '반도' '싱크홀' 재난 영화 몰려온다

### '여름=재난 영화' 흥행 맞춰 6월 '#얼론'·7월 '반도' 개봉

올해도 '여름=재난 영화' 흥행 공식이 통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요즘, 각종 재난을 소재로 한 작품이 슬슬 여름 개봉 준비에 들어갔다. 코로나19로 영화보다 더 극적인 현실이 펼쳐진 만큼, 스크린 속 재난은 관객들에게 단순히 허구로만 다가오지 않을 듯하다.

15일 영화계에 따르면 배급사 롯데컬처웍스는 영화 '#얼론' (가제)을 오는 6월 개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얼론'은 정체불명의 감염 때문에 통제 불능이 된 도시에서 고립된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좀비를 연상케 하는 감염자들이 등장하며, 한정된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재난 스릴러물이다. 유아인이 세상과 단절돼 홀로 아파트에서 살아남은 게이머 주후 역을, 박신혜가 생존자 유빈 역을 맡았다. 둘은 고립된 상황에서 무전기 등을 통해 소통하며 '꼭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를 다진다. SNS나 드론, 온라인게임과 같은 다양한 현실적인 장치들이 등장해 이야기 몰입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TV 다큐 시리즈 '스몰 비즈니스 레볼루션: 메인 스트리트' 등을 연출한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 맷 내일리가 원작 시나리오를 썼고,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연출을 전공하고 단편영화 '진'(JIN)으로 주목받은 조일형 감독이 각색과 연

출을 맡았다. '국가부도의 날' '마스터' 등을 만든 영화사집 신작이다.

7월에는 '부산행' 연상호 감독 신작 '반도'가 선보인다. '부산행' 그 후 4년이 흐른 뒤 폐허가 된 땅에서 최후의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강동원과 이정현이 주연으로 활약했다.

최근 공개된 1차 예고편은 디스토피아적인 비주얼과 한층 빨라진 좀비 때, 속도감 넘치는 액션으로 시선을 붙들었다. 그 덕분에 공개된 지 5일 만에 조회 수 1천만건을 넘을 정도로 국내외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타워' 김지훈 감독 신작 '싱크홀'도 여름 개봉을 앞뒀다. 11년 만에 마련한 내 집이 싱크홀로 추락하며 벌어지는 재난 코미디물이다. 차승원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밤낮으로 고군분투하는 청운빌라 주민 정만수를 연기했다. 김성균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뤘지만, 집과 함께 싱크홀에 갇히게 되는 비운의 가장 박동원 역을, 이광수가 직장 상사 박동원과 함께 싱크홀에 갇히게 되는 후배 김승현 역을 맡았다.

통상 여름철에는 재난 영화가 많이 개봉한다.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며 더위를 식히기에 제격이어서다. 지난해 여름에는 조정석·임유아 주연 재난 액션 코미디 '엑시트'가 개봉해 943만명을 불러모으며 여름 대천 승자가 됐다.

영화계 관계자는 "재난 영화들은 어려움에 직면한 인간의 다양한 군상을 극적으로 보여줘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면서 "다만, 재난 상황이 시대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영화 '유령선' ... "세월호 항로 기록은 조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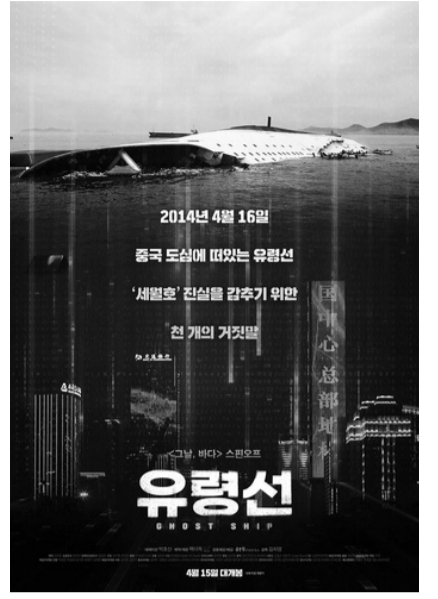
### 세월호 6주기에 맞춰 개봉

지난 2018년 개봉한 영화 '그날, 바다'는 세월호의 항로를 기록한 AIS(선박자 동식별장치) 데이터를 근거로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다.

세월호 6주기에 맞춰 15일 개봉한 영화 '유령선'은 '그날, 바다'의 스피노프로서, 이 AIS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다큐팀은 2014년 국회에 제출된 AIS 데이터를 분석해 정부 관계센터에서는 나올 수 없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주장한다. 이 데이터를 더 분석한 결과 해당 항로에는 있을 수 없는 스웨덴 선박이 나왔고, 그 위치 정보는 중국 선전시 한복판이었다. 이 스웨덴 선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배였다. 그리고 세월호 데이터뿐 아니라 사고해역을 운항한 선박 1천 척의 데이터가 함께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누가 어떻게 왜 이 데이터를 조작했는지부터는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설명으로, 본격 추정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AIS 데이터의 위치 정보에 있는 중국 선전시 한 사무실에서 누군가의 의뢰에 의해 기술자가 이 데이터를 조작했고, 조작



된 데이터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미처 지우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건네줬다는 것이다. 합리적 의심까지는 나아가지만, 누가, 왜 조작을 했는지 답을 주지는 않는다.

'그날, 바다'의 제작을 맡은 김여준과 연출을 맡은 김지영 감독이 다시 뭉쳐 만들었다. 배우 박오산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영화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언리얼'이라는 게임 엔진을 써서 만들었다고 한다. 12세 관람가. /연합뉴스

## 방탄소년단, '빌보드 200' 37위... 7주째 상위권

방탄소년단(BTS) 신보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7주째 상위권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다.

14일(이하 현지시간) 빌보드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 2일 발매한 정규 4집 'MAP OF THE SOUL : 7'은 '빌보드 200'에서 37위를 기록했다.

발매 직후 '빌보드 200'에서 1위로 데뷔한 이후 7주째 상위권을 지키는 중이다.

한편 방탄소년단 데뷔 앨범인 '투 쿨 포 스쿨' (2 COOL 4 SKOOL)은 팬들의

'만우절 장난'으로 지난주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빌보드는 2013년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첫 앨범 '투 쿨 포 스쿨'이 발매 후 거의 7년 만에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 데뷔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앨범 타이틀곡인 '노 모어 드림'(No More Dream) 역시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2위를 기록하며 한 주 동안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K팝이 됐다. 수록곡 '인트로 : 투 쿨 포 스쿨'과 '좋아요'는 각각 18위와 10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2020 총선 특집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2020 총선 특집 KBS 뉴스	00 꿀잼 영화가 좋다 40 무한리플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2020 총선 특집 국민의 선택	40 지구촌 뉴스	45 그 남자의 기억법(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인간극장 스페셜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2020 총선 특집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뽀뽀모 모야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2020 한국 민영방송대상 최우수상 수상작 다큐만타지 환생, 달의 소리
1	00 사랑의 가족 50 UHD 스테이지 55 착한 소비 프로젝트 우리 함께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푸르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세월호 추모 앙코르 KBS 스페셜		55 중계방송 4.16 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식	
3	00 여성여정(재)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2020 총선 특집사사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스페셜	00 기분 좋은 날(재)	00 2020 한국 민영방송대상 우수상 수상작 전북의 발견
5	00 2020 총선 특집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또봇 V 2 15 캐치 티니핑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30 4.16 세월호 참사 추모 다큐 부재의 기억 감독판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토크리 스쿨 2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30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위험한 약속	30 MBC 뉴스데스크	30 특집 SBS 8 뉴스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이십세기 히트-트송	55 그 남자의 기억법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2020 총선 특집 KBS 뉴스 9			
10	00 특집 대담 2020 총선 21대 국회 전망은?	00 여서와	05 시리즈M	00 맛남의 광장
11	00 더 라이브 40 착한 소비 프로젝트 우리 함께 5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살림하는 남자들(재)	05 100분 토론	40 점수! 무비월드 스페셜
12	10 KBS 중계식 스페셜 <세계 피아노의 날 기념 온라인 콘서트 1>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30 나는 트로트 가수다	40 나이티라인

## EBS1

07:0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2:30 지식의 기쁨(재)	17:45 허풍선이 음악쇼
07:15 애코와 친구들	13:00 명의	18:00 생방송 특!특! 특! 하니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3:50 EBS 스페이스 공감	19:00 말괄량이 삐삐
08:00 동등영 유치원	14:40 아기 동물 귀여워	19:30 최고다! 호기심딱지
08:30 띠띠뽀 띠띠뽀	15:00 오드뽀. 이상한 아이들	19:45 자이언트 팽TV
08:45 엠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15:1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재)	20:00 극한직업
09:00 레인보우 루비	15:25 애코와 친구들(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몰랑	15:55 꼬마히어로 슈퍼잭(재)	<이것이 진짜 서이프리카 -물위에 산다 엔젤레조>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6:10 레인보우 루비(재)	21:3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6:25 엠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재)	<돌고 돌아 행복 4부 겨울 기쁜 봄이 오지>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40 동등영 유치원(재)	21:50 다큐 잇it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00 EBS 뉴스	22:40 다문화 고부 열전
12:00 EBS 정오뉴스	17:20 띠띠뽀 띠띠뽀 (재)	23:30 경이로운 지구
12:10 경이로운 지구	17:35 몰랑(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6일 (음 3월 24일 己丑) ☎ 010-9790-8237

<p><b>子</b></p> <p>36년생 폭 넓게 다루는 것이 낫다. 48년생 처한 입장 때문에 원칙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60년생 흔들리지 말고 태연 자야 해야겠다. 72년생 중정을 잃지 말고 자기 일에 열중하는 것이 최상의 승자가 되는 길이다. 84년생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유리하다. 96년생 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일들이 발생하겠다. 행운의 숫자 : 22, 81</p>	<p><b>午</b></p> <p>42년생 세심하게 살펴보는 진중함을 필요로 한다. 54년생 도를 넘는다면 역효과가 날 수 밖에 없다. 66년생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으니 계획대로 진행하라. 78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빨리 떨쳐버리는 것이 좋다. 90년생 앞면서도 빠뜨릴 가능성이 높으니 잘 살펴봐야 하느니라. 02년생 타격을 받지는 않으니 무시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39, 70</p>
<p><b>丑</b></p> <p>37년생 끝까지 계속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니라. 49년생 외면보다는 내용에 치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61년생 기다려왔던 것을 실행해야 할 적기이다. 73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85년생 감성이 비추면서 흥이 절로 나리라. 97년생 아차하면 후회할 것이니 시간 할애를 잘 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6, 73</p>	<p><b>未</b></p> <p>31년생 전혀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43년생 새로운 방법을 모색 하자. 55년생 목표에 진입하여 위해서 희생이 따른다. 67년생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79년생 욕망을 가려낼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하다. 91년생 현실적인 실리가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15, 74</p>
<p><b>寅</b></p> <p>38년생 기저회생하는 기쁨이 매우 클 것이나. 50년생 지나치게 맹신하다가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62년생 취약점을 보완한 후에 재도전 하자. 74년생 변화무쌍한 성공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86년생 상하간에 소통할 수 있는 연결 고리가 절실하다. 98년생 중요한 일을 이룰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91, 55</p>	<p><b>申</b></p> <p>32년생 기대만한 성과를 거둔다. 44년생 가장 시급한 일에만 우선적으로 집중하라. 56년생 본격적인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68년생 중구적으로는 상호 이해관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80년생 한 곳에 몰입하다보면 주변 상황에 소홀해지기 쉽다. 92년생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일취월장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3, 91</p>
<p><b>卯</b></p> <p>39년생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51년생 꼭 해야만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상호 간에 이해가 부족하게 된다. 63년생 불일치로 인한 폐단이 보인다. 75년생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87년생 구색을 다 맞추다보면 부담스러워진다. 99년생 관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6, 78</p>	<p><b>酉</b></p> <p>33년생 관점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45년생 안정 국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57년생 신력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 69년생 지나치다만 폐단을 미급게 되리라. 81년생 원칙대로 준수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 93년생 시종일관 충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2, 94</p>
<p><b>辰</b></p> <p>40년생 넓고 깊은 물속에 큰 물고기가 사는 법이다. 52년생 지난날일랑 모두 잊고 앞일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 64년생 도움을 받아야만 처리 될 수 있으리라. 76년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다. 88년생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00년생 뜻밖의 소식을 듣거나 의외의 인물을 만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3, 54</p>	<p><b>戌</b></p> <p>34년생 재판사가 양호하게 시작 되면서 활기를 띠게 되리라. 46년생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생기면서 비배될 것이나. 58년생 기회는 있지만 달갑지 않을 것이다. 70년생 들발 상황이 속출하면서 정신없겠다. 82년생 모든 것을 차지하고 새롭게 시작함이 유익하다. 94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딜레마에 빠져들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3, 96</p>
<p><b>巳</b></p> <p>41년생 급한 불은 진화 되었으니 한 시름 놓아도 된다. 53년생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5년생 실적이 쌓이고 성과가 드러나게 되는 시기이다. 77년생 계속 유지 될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 89년생 유연한 사고가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다. 01년생 기회를 잃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4, 51</p>	<p><b>亥</b></p> <p>35년생 적극적으로 임하다보면 행운을 잡게 된다. 47년생 표리가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믿어 준다. 59년생 차분히 살펴보고 천천히 판단해도 되느니라. 71년생 미진한 부분을 손질한다면 매끄러워지겠다. 83년생 당면 과제에 집중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와 있다. 95년생 공들여 왔던 것에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7, 76</p>